

## 제주지리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소고 : 『이원진\_탐라지』 이후의 제주지리지를 중심으로

김새미오\*

1. 들어가며
2. 조선시대 『이원진\_탐라지』 이후의 제주지리지
3. 일제강점기 이후의 제주 지리지
4. 제주지리지 『탐라지』의 의미
5. 나오며

### Ⅰ 국문초록

본고는 『이원진\_탐라지』 이후 확인되는 10여종의 제주지리지를 정리·보고하고 그 의미를 규명한 글이다. 각각의 『탐라지』는 적지 않은 출입이 있지만, 모두 시대와 변화에 맞게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시대 『탐라지』는 『이원진\_탐라지』에서 시작하여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 한 차례 크게 변화하였고, 조선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조선이 일제에 병탄된 후에는 공식적으로 『탐라지』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형태의 제주지리지가 출현하였다. 이 시기 제주지리지는 통계자료를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kimsaemio@hanmail.net

기초로 하여 제주를 다시 정리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각종조사 항목들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정의현과 대정현은 사라졌고, ‘제주’라는 하나의 지역을 주제별로 정리하였고, 상업적인 목적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시대의 『탐라지』를 계승하는 작업도 확인된다.

제주 지리지가 이렇게 많이 확인되는 이유는 제주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고, 조선후기 서양세력의 진출로 바다와 변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술시각의 전환도 주목된다. 조선시대 『탐라지』가 외부인의 시각으로 기술되었다면, 일제강점기 제주지리지에서는 제주사람들이 제주를 주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식인들이 주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제주지식인들의 성장과 함께 구한말 출륙금지령이 유야무야되면서 지리적 인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마을지리지를 비롯하여 도지(道誌)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제주지리지 인식의 기저에는 모두 『탐라지』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제주지리지, 탐라지, 증보탐라지, 남환박물, 대정군지, 신흥리지

## 1. 들어가며

본고는 『이원진(李元鎭)\_탐라지(耽羅誌)』<sup>1)</sup> 이후의 『탐라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탐라지』는 제주에 관한 제반 사항을

1) 『탐라지』는 여러 저자와 판본이 존재하여, 기술상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 서는 『저자\_탐라지』 또는 『서지형태\_탐라지』의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기록한 지리서이며, 제주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탐라지』는 효종 때에 제주목사로 왔던 이원진이 처음 작성하였고,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이원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진\_탐라지』는 1975년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 1차 번역된 바 있고, 2002년에 김찬흠 등이 중심이 되어 재번역되었다. 이원진의 문집인 『태호문집(太湖文集)』도 번역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확인된다.<sup>2)</sup> 이를 바탕으로 김새미오는 『이원진\_탐라지』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sup>3)</sup> 이 연구는 『이원진\_탐라지』의 형성과정과 제 판본에 관련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원진\_탐라지』가 당시 기준문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확인되는 많은 『탐라지』에 대한 소개와 언급은 없다. 부차적으로 제주의 출판문화에 대해서 남권희, 김우리, 박철상, 윤봉택의 연구가 참조된다.<sup>4)</sup> 이 밖에 읍지와 사찬지리서에 대해서는 연구도 참조할 만하다.<sup>5)</sup> 하지만 『탐라지』에 주목하여 통시적으로 정리한 글은 확인되지 않

2) 김효정, 「太湖 李元鎭의 詩世界 考察」, 『한국민족문화』 제73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97~124쪽; 윤재환, 「新資料『太湖詩藁』를 통해 본 李元鎭의 詩世界 -資料 소개와 詩世界의 概略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제18호, 우리한문학회, 2008, 391~428쪽; 윤재환, 「少陵家の 使行 經驗과 詩의 形象化-少陵 李尙毅·太湖 李元鎭·梅山 李夏鎭을 中心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1호, 동양한문학회, 2010, 197~232쪽.

3) 김새미오, 「『이원진\_탐라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제112호, 대동문화연구소, 2020, 349~378쪽.

4)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서지학연구』 제34호, 한국서지학회, 2006, 251~271쪽; 김우리,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3호, 역사문화학회, 2020, 157~190쪽;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제8호,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박철상, 「조선 최고의 병서 제주도판 『황석공소서』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해석』 제45호, 문헌과해석사, 2008, 265~274쪽; 박철상, 「제주판 『삼국지연의』 간년 고증」, 『포럼 그림과 책 2011 논문집(1)』, 화봉문고, 2011;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논문, 2007; 김민현, 「1411년 제주도 간본 『논어』의 서지학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15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33~53쪽.

5) 사찬읍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참고문헌에 병기하였다.

는다.

『이원진\_탐라지』는 제주를 본격적으로 알린 최초의 문헌이며, 제주학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정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매우 많은 『탐라지』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 책들은 제주도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수용되고 확장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적들이다. 본고에서는 『탐라지』를 중심으로 제주지리서에 대해 살펴보고 그 구조를 정리하면서,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원진\_탐라지』 이후에 10여종의 제주지리서가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리하고 소개한 글은 없다. 이제 이렇게 많은 제주지리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단계이다. 지역에서 『탐라지』가 번역된 경우 그나마 간단하게나마 해제를 담고 있지만, 통시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서술에 그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이원진\_탐라지』 이후 확인되는 『탐라지』 및 제주지리지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고전전종합목록시스템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탐라지』라는 이름 외에도 제주도 지리지의 성격을 갖는 경우 역시 같이 서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 둘째, 확인되는 『탐라지』와 제주지리지가 서로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원진\_탐라지』 이후의 제주지리지는 기본적으로 수용과 반발의 형태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는 시대변화에 따른 정보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런 변화사항을 정리한다면, 제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용되고 확장되는지를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제반과정을 통해 제주지리지인 『탐라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제주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2. 조선시대 『이원진\_탐라지』 이후의 제주지리지

『이원진\_탐라지』는 1653년에 완성되었고, 이 해에 판각되어 초판본이 나왔다. 이 책을 만들 때에 고흥진(高弘進)과 같은 제주지식인이 교감에 참여하였다. 여러 차례 실화로 책판고가 불타면서 『탐라지』 책판도 함께 소실되었지만, 순조 때 제주목사 박장복이 중간한 것으로 판단된다.<sup>6)</sup> 『이원진\_탐라지』는 작성과 동시에 제주의 기준문헌으로 자리하였고, 이후 여러 종류의 『탐라지』와 『제주읍지』와 같은 지리지가 작성되었다. 먼저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탐라지』 및 『제주읍지』〉

	작성연대	명칭	형태	소장처	비고
0	효종4년 (1653)	『李元鎭_耽羅誌』	필사본 목판_초간본, 중간본		순조34년 (1834) 重刊 김찬흡 외 역
1	숙종30년 (1704)	『李衡祥_南宦博物』	필사본	제주자연사 박물관 문중소장	이상명 외 역
2	영조20년 (1744)	『尹植_續邑誌』			제주 관풍안
3	영조 41년 (1765)	『尹耆東_增補耽羅誌』	필사본	천리대학교	김영길 역
4	순조	『李綱會_耽羅職方說』	필사본	京都大河合文庫	현행복 역
5	헌종7년 (1841)	『李源沚_耽羅誌草本』	필사본	탐라문화총서 4	제주교육 박물관 역
6	헌종14년 (1848)	『張寅植_耽羅誌』	필사본	탐라문화총서 5	
7	고종10년 (1873)경	『崔永學_耽羅誌』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6) 김새미오, 앞의 글.

8	광무6년 (1902)	『작자미상_耽羅誌』	필사본	탐라문화총서 5	
9	융희3년 (1909)	『耽羅事實』	필사본	서울대, 고려대	
10	정조16년 (1792)	『濟州邑誌』	필사본	규장각 상백 古 915. 149-J389	
11	1785년 이후	『濟州邑誌』	필사본	규장각 10796	
12	고종36년 (1899)경	『濟州邑誌』	필사본	규장각 12181	

먼저 표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일단 본고의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탐라지』이고, 『제주읍지』는 부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위에 기술된 『탐라지』는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제주읍지』 역시 그 형식은 『탐라지』와 유사하다. 단, 『윤식(尹植)\_속읍지(續邑誌)』는 『제주관풍안(濟州觀風案)』에서 책 이름만 보이고,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 〈1〉 『이형상(李衡祥)\_남환박물관(南宦博物)』

『이형상\_남환박물관』은 『이원조\_탐라지』 이후 처음으로 확인되는 제주지리지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책은 2종의 필사본이 전한다. 한 부는 문중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 한 부는 제주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7)</sup>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이 두 판본의 큰 차이는 『北屑拾霧』에 있다. 현재 제주자연사박물관 본에는 『북설습령』이 없다. 『북설습령』은 북방민족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간략한 역사, 청나라의 군제와 행정체계를 소개하였다.

구분	『이원진_탐라지』와 『남환박물』의 구성
『이원진_탐라지』 濟州	建置沿革 - 鎭管 - 官員 - 邑名 - 姓氏 - 風俗 - 形勝 - 山川 - 橋梁 - 土産 - 田結 - 城郭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 - 宮室 - 樓亭 - 倉庫 - 學校 - 鄉約 - 祠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醫藥 - 貢獻 - 古跡 - 名宦 - 人物 - 孝子 - 烈女 - 題詠
『이형상_남환박물』	誌邑號 - 誌路程 - 誌海 - 誌島 - 誌候 - 誌勝 - 誌蹟 - 誌姓 - 誌人 - 誌俗 - 誌文 - 誌武 - 誌田 - 誌産 - 誌禽 - 誌獸 - 誌草 - 誌木 - 誌果 - 誌馬牛 - 誌魚 - 誌藥 - 誌貢 - 誌賦役 - 誌祠 - 誌關防 - 誌烽 - 誌倉 - 誌廩 - 誌兵 - 誌工 - 誌奴婢 - 誌吏 - 誌行 - 誌古 - 誌名宦 - 荒腹願戴歌

먼저 『이원진\_탐라지』와 『이형상\_남환박물』의 큰 차이는 형식에 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형상\_남환박물』의 주요 인용서목은 『여지지(輿地誌)』, 『지지(地誌)』, 『남명소승(南溟小乘)』, 『남사록(南槎錄)』이다. 『여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말하고, 『지지』는 『이원진\_탐라지』를 말한다.<sup>8)</sup> 『지속(誌俗)』항목에서 특히 『이원진\_탐라지』가 많이 인용되었다. 『남명소승』, 『남사록』은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sup>9)</sup> 하지만 『이원진\_탐라지』에 소개된 많은 문학작품들은 배제되었다. 제주에 관련한 핵심사항만을 기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전체적인 면모에서 볼 때, 『이형상\_남환박물』은 이원진의 것을 수정·보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형상\_남환박물』의 핵심은 『지속』과 『지사(誌祠)』에 있고, 여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이는 병와 자신이 음사철폐로 대변되는 풍속교화에 있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저술의 직접적인 이유는 윤두서(尹斗緒)가 탐라고적에 대해 물어, 이에 대

8) 『지지』가 『이원진\_탐라지』라는 것은 『지속(誌俗)』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9) 김새미오, 앞의 글.

10) 김새미오, 「병와 이형상의 제주지방 의례정비와 음사철폐에 대한 소고」, 『대동한문학』 제63호, 대동한문화회, 2020, 103~140쪽.

한 답변으로 짓게 되었다.<sup>11)</sup> 이면에는 『이원진\_탐라지』이 발간된 지 51년의 시간이 흘렀고, 1677년 제주향교의 책판이 화재로 소실된 것<sup>12)</sup>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저술관점은 매우 실증적이다. 백록담에 대한 전설 등의 기록에 대해 ‘과장이다’, ‘잘못 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sup>13)</sup>

『이형상\_남환박물』은 『이원진\_탐라지』 이후 처음으로 확인되는 제주지리지이다. 이형상은 분명 『이원진\_탐라지』를 보았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주었고,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형상\_남환박물』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책은 이형상이 제주목사에서 파직된 후 영천에 작성되었고, 이후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에서 이 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혹 제주에서 봤다고 해도 그의 신당철폐를 했던 조치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내면적인 반발<sup>14)</sup>이 있어, 그 영향력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도 내에서는 여전히 『이원진\_탐라지』가 제주지리지의 핵심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윤시동(尹著東)\_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이 책은 『이원진\_탐라지』 이후 ‘탐라지’의 이름으로 처음 확인된다. 일본 천리대학교 이마니시 류컬렉션 소장이며, ‘건(乾)·곤(坤)’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는 ‘서춘추문고(西春秋文庫), 천리도서관인(天理圖書館印), 금서룡(今西龍), 금서문고(今西文庫), 윤시동백상인(尹著東伯常印)’의 인장이 있다. 이를

11) 『南宦博物』. “孝彦書問耽羅古蹟. 且曰, 將以廣異聞, 作南宦博物, 一萬三千八百五十餘言書贈. 甲申初秋, 題于永陽之浩然亭.”

12) 『南槎日錄』. “公廩. 冊版庫, 丁巳, 失火時, 諸冊版, 盡燒云.”

13) 『南宦博物』. “地誌云, 深不可測, 人喧則風雨暴作者, 誤傳也; 『南宦博物』, 小乘所謂, 白髮翁騎白鹿嘯呼云者, 誇之也.”

14) 김새미오, 앞의 글, 『대동한문학』 제63호, 대동한문학회, 2020, 103~140쪽.



통해 처음 소유자는 윤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윤시동은 제주목사를 역임한 인물이며, 영조 41년(1765) 8월에 도입하여 다음해 6월에 체임되었다.

이 책의 창고(倉庫) 항목에는 “동몽선습(童蒙先習), 갑신목사이명운신간(甲申牧使李明運新刊)”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명운은 윤시동의 전임목사였다. 다른 항목에서도 “금을유(今乙酉)”, “보을유(補乙酉)” 등의 문구가 있는데, 모두 윤시동 목사가 역임했던 영조41년(1765) 때이다. 건치연혁은 숙종 대까지 정리되었다.<sup>15)</sup>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윤시동_탐라지』 구성
濟州	建置沿革 - 鎭管 - 官員 - 邑名 - 姓氏 - 地形增 - 形勝 - 山川 - 道里增 - 橋梁 - 風俗 - 土產 - 面村增 - 戶口增 - 田結 - 城郭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增煙臺 - 館宇 - 樓亭 - 倉庫 - 學校 - 鄉約 - 祠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醫藥 - 貢獻 - 古跡 - 名宦 - 人物 - 孝子 - 忠臣增 - 烈女 - 題詠
旌義縣	建置沿革 - 官員 - 姓氏 - 山川 - 增道里 - 橋梁 - 風俗 - 土產 - 面村增 - 增戶口 - 增田結 - 城郭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增煙臺 - 館宇 - 樓亭 - 倉庫 - 學校 - 鄉約 - 祠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增 - 奴婢 - 果園 - 牧養 - 貢獻 - 古跡 - 名宦 - 人物增 - 孝子增 - 烈女 - 題詠增
大靜縣	建置沿革 - 官員 - 姓氏 - 山川 - 增道里 - 橋梁 - 風俗增風俗 - 增土產 - 面村增 - 增戶口 - 增田結 - 城郭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增煙臺 - 館宇 - 樓亭 - 倉庫 - 學校 - 鄉約 - 祠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增 - 奴婢 - 果園 - 牧養 - 貢獻 - 古跡 - 名宦增 - 孝子增 - 烈女增 - 題詠增
增補	권6「九鎭」; 권7「古今事蹟」; 권8「列朝特典御使詢瘼」; 권9「漂流異國問情」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증(增)’, ‘보(補)’한 형태이다. 증보에 이용되는 책은 『남명소승』, 『남사록』, 『수록(隨錄)』, 『속지(續誌)』, 『구지(舊誌)』가 있다. 이 책들은 모두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5) 『이원진\_탐라지』의 건치연혁은 예종까지 되어 있다.

『속지』는 총 7차례 확인된다. 『속지』의 내용에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오미자 등을 봉진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그 이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sup>16)</sup> 『수록』은 총 17차례 확인된다. 『수록』의 내용 중에는 이형상의 무속철폐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갑인년 정도원(鄭道元) 목사까지 언급하였다.<sup>17)</sup> 정도원 목사가 있었던 갑인년은 1734년(영조10)이다. 따라서 『수록』은 이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수록』은 풍속 조에 대한 기록이 많다. 『구지』는 2차례 확인된다.<sup>18)</sup> 하지만 그 내용은 이전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수록』, 『구지』, 『속지』는 어떤 종류의 서적인지는 알 수 없다. 이름만 확인되는 『윤식\_속읍지』가 이 중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항목으로 증보된 것은 「구진(九鎭)」, 「고금사적(古今事蹟)」, 「열조특전어사순막(列朝特典御使詢瘼)」, 「표류이국문정(漂流異國問情)」이다. 이는 윤시동이 핵심적으로 보충하려 했던 항목이었다. 「구진」에서는 제주 9진에 대한 기초사항은 물론, ‘위치, 정자, 연대, 군기, 창고’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고금사적」은 제주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다. 이는 『이원진\_탐라지』에서 「건치연혁」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정리하였다. 『윤시동\_탐라지』에도 「건치연혁」이 있는데, 철저히 행정체제 변화만을 기록하였다. 「열조특전어사순막」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에 어사로 왔던 인물들의 행적과 공적을 정리하였다. 「표류이국문정」 제주도에 표류했던 외국선박에 대한 기록이다. 총 30건이 수록되어 있다.

16) 『윤시동\_탐라지』, 土產. “補. 續誌. 壬午 牧使李衡祥 五味子五斗別封進. 朝廷以爲別封不當更勿封進 云.”

17) 『윤시동\_탐라지』, 風俗. “隨錄, 肅廟壬午, 牧使李衡祥痛其汚俗, 三邑所在神堂一百二十九處, 及私家禱神之物, 路傍叢林之處, 並與佛像, 而一時燒燼. 巫覡四百餘名, 焚其案, 使各歸農, 神位田並還本主. 其後, 又有大靜廣庭堂神像, 暗自改造, 嚇人取財. 甲寅牧使鄭道元火其神, 治其巫, 鍾鼓器皿沒入軍器. 而猶不懲畏, 歲夕魅鬼七七祈禱, 至今未息.”

18) 『윤시동\_탐라지』, “右兩庫, 舊誌其數甚多, 而廢不修補, 皆是虛簿. 故只以時在數載錄; 舊誌所記刪去, 但以今會案數載錄. 他鎭同.”

『윤시동\_탐라지』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를 계승하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학작품 등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이 책의 핵심 증보사항은 「구진」, 「고금사적」, 「열조특전어사순막」, 「표류이국문정」이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추가한 것이며, 변방의 자료를 정리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들 핵심사항은 『이원진\_탐라지』에 없는 사항이며, 이후에도 『탐라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한다.

〈3〉 『이강회(李綱會)\_탐라지방설(耽羅職方說)』

이강회(1789~?)는 다산 정약용의 제자이다. 다산이 강진 유배 시기에 그의 형인 이유회(李維會)와 함께 배웠다. 정약용의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의 저술할 때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주요 저서로 『유암총서(柳菴叢書)』와 『운곡잡저(雲谷雜著)』가 있다. 『이강회\_탐라지방설』은 제주지리지에 관한 기록이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탐라지방설』 구성
1권	개괄 - 거리 - 형승 - 뱃길 - 풍류 - 굴유 - 삼성신화 - 高粱之戰 - 田稅 - 대정 - 정의 - 마을 - 군진 - 군체제 - 목장 - 진상마 - 배 - 포구 - 봉화 - 10소장 - 교육기관 - 풍속 - 창고 - 은홀 - 출륙금지령의 병폐 - 地產 - 海產 - 藥 - 農산물 - 수공업 - 상품
2권	相贊契始末 - 李道喆傳 - 梁濟海傳 - 金益剛傳 - 李察理傳 - 尹光宗傳 - 金載儉傳

이 책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표의 항목명은 논자가 주제에 맞게 적은 것이다. 권1은 『탐라지방설』이고, 권2는 상찬계에 관련한 기록이다. 상찬계에 관한 기록은 이강회 자신이 제주의 지리와는 상관없고, 제주의 큰 옥사였기에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1만이 제주지리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 책의 구성은 대체로 『이원진\_탐라지』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영향을 받았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 책에는 인용서목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강희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책의 핵심은 제주뱃길과 제주의 포구에서 아전들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다. 대체로 제주의 출륙금지령 때문에 제주 포구 아전들의 행정조치를 독점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뇌물이 오가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런 류의 기록은 직접 듣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이강희 자신이 강진 주변 지역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제주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해양문화사의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저작이며, 당시 제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지리지라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아쉬운 면이 있다. 이에 이강희 자신도 개인열람용이라고 하였다.<sup>19)</sup>

#### 〈4〉 『이원조(李源祚)\_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이원조\_탐라지초본』는 『윤시동\_탐라지』 이후 확인되는 책이다. 이원조는 현종7년(1841) 윤 3월에 강능부사에서 전보되어 도입하고, 그 후 2년이 지나서 계묘년 6월에 사직하고 떠났다. 이원조는 『응와선생문집(凝窩先生文集)』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와서도 매우 활발하게 저술활동을 하였다. 『이원진\_탐라지초본』외에도 『탐라록(耽羅錄)』·『탐라계록(耽羅啓錄)』·『탐라관보록(耽羅關報錄)』이 있다. 먼저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耽羅職方說』, “別記其概, 以爲私覽.”

지역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구성
濟州	建置沿革 - 邑號攷證 - 山川 - 島嶼各浦附 - 物産 - 土俗 - 官職 - 氏族 - 坊里 - 戶口 - 道路院站附 - 橋梁 - 城池 - 壇廟 - 學校 - 公廨 - 樓觀 - 鎮堡 - 烽燧煙臺附 - 牧養 - 果園 - 貢獻各司納附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糶糴 - 倉庫 - 軍額 - 奴婢 - 工匠 - 人物 [孝烈忠義] - 形勝 - 題詠 - 古蹟 - 奇聞 - 邊情 [戰守·異船·漂流] - 舊例 - 恩恤 [調賑·蠲蕩·恩典] - 官案 - 判官
旌義縣	建置沿革 - 山川 - 島嶼各浦附 - 物産 - 土俗·氏族 - 坊里 - 戶口 - 道路院站附 - 橋梁 - 城池 - 壇廟 - 學校 - 公廨 - 樓觀 - 鎮堡 - 烽燧煙臺附 - 牧養 - 果園 - 貢獻各司納附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糶糴 - 倉庫 - 軍額 - 奴婢 - 工匠 - 人物 - 科宦 - 形勝 - 古蹟 - 官案
大靜縣	建置沿革 - 山川 - 島嶼各浦附 - 物産 - 土俗·氏族 - 坊里 - 戶口 - 道路院站附 - 橋梁 - 城池 - 壇廟 - 學校 - 公廨 - 樓觀 - 鎮堡 - 烽燧煙臺附 - 牧養 - 果園 - 貢獻各司納附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糶糴 - 倉庫 - 軍額 - 奴婢 - 工匠 - 人物 - 科宦 - 形勝 - 古蹟 - 官案

이원조는 이 책을 만든 후, 수정할 때는 제주지식인들을 뽑아 내용을 검토하게 하였다. 이원조는 김영락(金英樂)과 양관(梁觀)을 중심으로 강제진(姜齊鎭), 김용징(金龍徵), 강석호(姜錫瑚), 오형국(吳亨國)을 선발하였다.<sup>20)</sup> 이들은 당시 제주삼읍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다. 이는 『이원진\_탐라지』를 만들 때, 제주선비 고흥진을 참여시켰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형식적인 특징은 2가지이다. 하나는 「읍호고증」이다. 「읍호고증」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 처음 보이고, 이후 『탐라지』에서 계속 확인된다. 두 번째는 「기문(奇聞)」, 「변정(邊情)」, 「구례(舊例)」, 「은恤(恩恤)」의 4가지 항목이다. 4가지 항목에 대해 이원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제주 감영에 부임한 지 반년 동안 널리 찾아다녔어도 끝내 민간에서 흠어져 없어진 사적을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조정에 아뢴 공문서와 이곳 관아에서 작성한 기록을 취하여 여기저기 헤어져 온전하지 못한 것을 모아

20) 『耽羅錄』, 12월 2일. “邑誌修正事差出, 任司都監金英樂·梁觀, 州有司姜齊鎭·金龍徵, 大靜錫瑚, 旌義吳亨國.”

서 거칠게 한 책을 만들었다. 내 뜻으로 별도로 추가해 넣은 것은 4가지 편목이다. 첫째, 진기한 이야기[奇聞]이다. 이 땅은 본래 신령한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칭해지며, 제해(齊諧)의 괴담은 다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예전부터 내려오는 구례(舊例)이다. 예전 도읍지의 남은 습속과 제주영을 설치한 뒤의 사례는 상고할 만한 것이 많은 편이다. 셋째, 변경의 정세[邊情]이다. 삼면이 이국의 땅으로 뚝단배 한척이 이중삼중으로 통역하는 이유는 인명을 중시하고 바다를 방어하는 일을 엄히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은 은전(恩典)과 구휼(救恤)이다. 우리 성조께서 먼 곳에 사는 백성을 어루만져 달라는 은택이 전후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부분을 펴 보면 뒷사람 친애하는 마음을 펼쳐 일으킬 수 있다.<sup>21)</sup>

인용문은 『탐라록』 12월 2일조에 있는 「신수탐라지발(新修耽羅誌跋)」의 일부이다. 「기문」에는 제주도 설화 등 14편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백록담 설화, 설문대 설화, 김치 판관과 강림이 출현하는 차사본풀이, 김만일 이야기, 어사 조성립의 기문, 산방덕이 설화, 광양당, 영등신, 김녕사굴 전설, 광정당 설화, 한모살개 이야기, 제주토속, 해녀설화, 백록담의 흰 사슴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제주도 신화와 설화를 모티브로 기록한 것이며, 지금도 제주도설화조사에서 확인된다. 중요한 점은 이원조가 이런 이야기를 괴력난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신당철폐를 하면서 급하게 유교화하려 했던 이형상 목사와는 분명 다른 방향이었다.

「변정」은 전수(戰守), 이선(異船), 표류(漂流)의 세부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전수는 고려~조선명종에 이르기 까지 제주에 있었던 전투에 대한 기록이

21) 「耽羅錄」, 12월 2일. 「新修耽羅誌跋」. “莅營半載, 廣搜博訪, 而竟不得一逸史於桮. 祇取之公家啓牒, 館宇題識, 斷爛衰粹, 草成一本. 條列分合, 或仍或改, 而以己意添入別條者四. 曰奇聞. 此地素稱靈仙窟宅, 諧齊志怪, 不可全沒也. 曰舊例. 古都遺俗, 及設營後, 事例多有可攷也. 曰邊情. 三面異域, 一帆重譯, 所以重人命, 而嚴海防也. 終之以恩恤. 我聖朝懷柔之澤, 前後曠絕, 一開卷, 可以興起其親上之心也. 編既成, 并與新舊兩本, 而藏棄之. 不敢遽付之剞劂, 去取刪補, 更俟後人云.”

다. 이선은 총 11건의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외국선박이 표류했던 것과 정박했던 것에 관련한 사항이다. 표류는 제주 사람의 표류했던 4건의 사건을 기록했다. 「변정」의 항목은 『윤시동\_탐라지』의 것을 보다 세밀하다. 기존의 것을 보완하는 성격이 아니라, 재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구례」에는 제주목사가 알고 있어야 할 일들과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도회관(都會官), 군관(軍官), 도배(徒配), 과시(科試), 전최(殿最), 발순(發巡), 선금(船禁), 노인연(老人宴), 압령(押領), 역학생(譯學生), 의국(醫局), 산렵(山獵), 목우우(木牛偶)’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제주목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은휙」은 주진(賙賑), 견탕(鑷蕩), 은전(恩典)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었다.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제주에 베풀어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적었다. 주로 흥년 때에 곡식을 진휼했던 기록이다. 이 역시 『윤시동\_탐라지』의 「열조특전 어사순막」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원조는 조정의 조치를 통시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윤시동은 제주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몇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초본의 형태이기에 수정표시가 있다는 점이다. 수정표시는 차례를 정리한 경우, 첨가한 경우, 삭제한 경우가 있다. 이 중 삭제와 첨가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조_탐라지초본』 수정부분	
추가1	世宗朝, 遣曆官尹士雄崔天衡李茂林三人, 測極度於漢峯山. 事在雲觀志.
첨가2	以邑人高承祖, 爲三邑都知上鎮撫
삭제1	黃祐獻 運籌堂記 [전체 삭제]
삭제2	大明初平雲南 徒梁王家屬于州.
삭제3	梁氏譜牒曰, 毛羅國主遣良宕夫繼良, 入朝新羅, 王嘉之, 以宕爲星主, 改賜姓梁, 以繼良爲王子. 其後, 高氏滅梁氏之國云. 未詳.

수정과 삭제를 누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삭제와 첨가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씨와 양씨에 관련한 사항이다. <삭제3>의 내용은 양씨가 원래 제주성주였는데, 고씨가 양씨를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삭제2>는 운남성에 있던 명나라 양왕이 제주로 와서 정착했다는 기록이다. <첨가2>는 고승조의 벼슬에 관련한 사항인데, 이는 조선 초 좌우도지관으로 나눌 때의 기록이다.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씨에 대한 기록이 다소 우호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sup>22)</sup> 황우헌(黃祐獻)의 기문은 모두 기록해 놓고, 삭제 표시를 했다.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읍치연혁」은 정조2년(1778)까지 기록되어 있다. 「읍호고증(邑號考證)」은 『탐라지』에서 처음 확인된다. 주요 문헌근거는 『구지』, 『남명소승』, 『남사록』이 확인된다. 『남사록』보다는 『남명소승』의 인용빈도가 높다. 이원진의 시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 『이원진\_탐라지』를 참고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관심을 끄는 것은 『윤시동\_탐라지』에서도 보이는 『구지』의 존재이다. 명월진(明月鎭)에 대한 설명에서 『윤시동\_탐라지』와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는 공통적으로 『구지』를 인용하였다.<sup>23)</sup> 이 내용은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지』는 당시 제주 관아에 남아있던 기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기존의 기록을 보충하여 당시의 변화사항을 성실하게 담아내었다. 이 책에서 처음 나오는 「읍호고증」과 「기문」, 「변정」, 「구례」, 「은홀」은 이원조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다. 이 사항들은 이후 『탐라

22) 고씨와 양씨에 관련한 사항은 제주지방에서 매우 큰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삼성사에서 모시고 신위의 차례도 ‘高梁夫’인지, ‘梁高夫’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權震應이 지은 「濟州三姓廟節目」에서는 양씨를 앞세우고 있지만, 역시 정확한 문헌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23) 『이원조\_탐라지초본』, “舊誌, 又地誌, 三別抄據珍島, 先遣僞將李文京, 到泊于此. 又金方慶討三別抄, 左軍入飛揚島, 卽此浦也. 胡宗朝, 亦來泊于此. 又恭愍時, 元牧子等作亂. 遣崔瑩等, 諸元帥領兵來討, 牧子等拒戰于此浦, 大軍進擊破之云.”



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순조 때에는 『이원진\_탐라지』가 중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원조가 이렇게 제주지리지를 작성하게 된 것은 부족한 면을 많이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의 제주지리지의 중심은 『이원조\_탐라지초본』로 옮겨오게 된다.

#### 〈5〉 『장인식(張寅植)\_탐라지(耽羅誌)』

이 책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발간된 탐라문화총서(5)에 『탐라지』의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탐라지』 2종이 소개되어 있다. 두 판본 모두 필사본이다. 서두에는 일본동양대학교 소장본과 『남만리\_탐라지』이라고 하였다. 일본 동양대학교 소장본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목에 관련한 내용만 전하며, 정의현과 대정현의 내용은 없다. 필자가 살펴본 결과 이는 『장인식\_탐라지』임을 알 수 있었다. 『장인식\_탐라지』의 존재는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의 『담수계\_증보탐라지』 서문에서 확인된다.

이로부터 이어서 대대로 서술한 사람이 적지는 않았으니, 응와(凝窩) 이원조(李源朝)·묵암(默菴) 장인식(張寅植)과 같은 분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모두 세상에 간행되지 못했다.<sup>24)</sup>

심재 김석익은 『이원진\_탐라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원조\_탐라지초본』, 『장인식\_탐라지』를 거론하였다. 『윤시동\_탐라지』는 심재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인식은 현종14년(1848)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2년간 근무하였다. 이는 이원조목사와는 5년의 시간차이다.

『장인식\_탐라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책에는 장인

24) 『心齋集』, 「增補耽羅誌序」.

식의 글이 다수 실려 있다. 여기에 「제주관풍안」에 제주목사는 이의식(李宜植)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장인식 목사의 전임자이다. 관관은 탁종술(卓宗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장인식 목사 때 제주판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의 『탐라지』에서 장인식의 글이 들어간 경우가 종종 확인되는데, 모두 이 책의 기록을 참조한 것이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	『장인식 탐라지』의 구성
濟州	建置沿革 - 鎭管 - 官員 - 邑名 - 邑號攷證 - 姓氏 - 風俗 - 形勝 - 山川 - 島嶼各浦附 - 橋梁 - 土産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城郭 - 坊里 - 戶口 - 道路院站附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煙臺附 - 宮室 - 公廨 - 樓亭 - 倉庫 - 糶糴 - 學校 - 鄉約 - 壇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醫藥 - 貢獻 - 古蹟 - 先生案 - 科宦 - 人物(孝烈忠義) - 奇聞 - 異見 - 邊情(異船漂流) - 舊例 - 恩恤(賙賑蠲蕩恩典)
旌義縣	없음.
大靜縣	없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읍호고증』에서는 ‘인용신축속지(引用辛丑續誌)’라는 소주가 있다. 이 책에는 종종 ‘신축속지(辛丑續誌)’ 또는 ‘속지(續誌)’라는 주석이 있는데, 모두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말하며, 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문」, 「변정」, 「구례」, 「은홀」 역시 모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건치연혁’ 역시 ‘정종(正宗) 2년’까지로 이 역시 『이원조\_탐라지초본』과 일치한다.

『이원조\_탐라지초본』과 차이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장인식\_탐라지』에는 정의현과 대정현 자료가 없다는 것, 둘째, 장인식의 글이 추가되었다는 것, 셋째, ‘제주관풍안’ 내용이 장인식 때까지 연장된 것이다. 정의현과 대정현의 자료가 없고, 장인식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이원조\_탐라지초본』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인식\_탐라지』는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보충하여 완전한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우선 첨지형태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양씨와 관련한 삭제 표시는 모두 반영되었다. 삭제된 부분 중에 황우현의 「운주당기(運籌堂記)」은 다시 수록되었다. 이외에 김영업(金莢業, 1784~1835)의 「굴림당개건기(橘林堂改建記)」가 있는데, 이는 『장인식\_탐라지』에서만 확인된다. 김영업은 제주출신으로 제주판관을 지낸 인물이다. 「수전소(水戰所)」의 항목은 ‘금폐(今廢)’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강회\_탐라지방설』에서 제주에 군선이 없다는 기록<sup>25)</sup>과도 일치한다.

『장인식\_탐라지』는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보충하며 완성한 형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보다 완성된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6〉 『작자미상\_탐라지』

이 책은 탐라문화연구총서(5)에 『장인식\_탐라지』와 함께 실려 있다. 해제에는 대정현감을 지낸 남만리(南萬里)의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대정현감 선생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탐라지』는 대정현감이 만들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남만리는 1902년에 부임했는데, 그 즈음에 제주목사를 지냈던 인물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sup>26)</sup>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5) 『이강회\_탐라지방설』, 濟無戰船, 惟有私船將近五百.

26) 이에 대해 필자는 洪鍾宇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902년 제주목에 부임한 관리 는 ‘郡守 金昌洙 - 牧使兼判事 尹錫仁 - 郡守 宋錫珍’이 있고, 1903년에는 牧事兼判事 洪鍾宇가 부임하였다. 1902년 부임한 인물들은 재임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고, 홍종우는 2년 동안 제주도를 다스렸다. 홍종우인 경우 문집은 확인되지 않지만, 약간의 글이 산발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자자미상_탐라지』의 구성
濟州	官員 - 邑名 - 姓氏 - [金綴「漢拏山記」 일부] 이하 없음. 奇聞 - 異見 - 邊情(異船漂流) - 舊例 - 恩恤(開賑蠲蕩恩典)
旌義縣	建置沿革 - 官員 - 形勝 - 山川 - 島嶼各浦附 - 橋梁 - 大同 - 俸廩 - 徭役 - 城郭 - 坊里 - 戶口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 - 宮室 - 公廨 - 樓亭 - 倉庫 - 糶糴 - 學校 - 壇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貢獻 - 古蹟 - 先生案 - 科宦 - 人物
大靜縣	建置沿革 - 官員 - 姓氏 - 形勝 - 山川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城郭 - 坊里 - 戶口 - 道路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 - 宮室 - 公廨 - 樓亭 - 倉庫 - 糶糴 - 學校 - 壇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醫藥 - 貢獻 - 古蹟 - 先生案
기타	瀛州十一景, 李禮延_耽羅八詠

이 책은 제주목과 관련해서는 1장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정의현과 대정현의 기록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정의현과 대정현의 내용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주목 부분의 「기문」 등의 항목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에 기초한 것이다. 기타 사항으로 「영주십일경(瀛州十一景)」과 「탐라팔영(耽羅八詠)」이 있다. 「영주십일경」에는 기존 영주십경에서 용연야범(龍淵夜泛)을 추가했는데, 제목만 기록하였다. 「탐라팔영」은 이에연(李禮延)의 5언절구로 제주의 풍속을 읊고 기록한 것이다.



시대가 차이가 있지만, 이 책의 대정·정의 부분과 『장인식\_탐라지』의 제주목 내용을 합친다면, 『장인식\_탐라지』의 모든 모습을 어렵듯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탐라지』는 제주목에 관한 기록이 핵심이다. 제주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책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 〈7〉 『최영학(崔永學)\_탐라지(耽羅誌)』

이 책은 충청도 모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과 관련한 서적들이 많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면암 집안의 것으로 보면 된다. 주지하듯 면암은 1873년에 제주도에 유배를 왔었

고, 조선말기 제주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면암 집안에 소장하고 있다는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최영학_탐라지』의 구성
濟州	建置沿革 - 鎭管 - 官員 - 邑名 - 邑號攷證 - 姓氏 - 風俗 - 形勝 - 山川 - 島嶼各浦附 - 橋梁 - 土産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城郭 - 坊里 - 戶口 - 道路院站附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煙臺附 - 宮室 - 公廩 - 樓亭 - 倉庫 - 糶糴 - 學校 - 壇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醫藥 - 貢獻 - 古蹟 - 先生錄 - 科宦 - 人物
旌義縣	없음
大靜縣	없음

먼저 이 책에는 3개의 인장이 있다. “장(藏)” “위당(緯堂)” “최영학장(崔永學章)”이다. 면암 최익현은 4남1녀를 키웠는데, 이들은 “영조(永祚), 호길(虎吉), 영학(永學), 영복(永福)”이다. 최영학은 면암의 형인 최승현(崔升鉉)에게 양자를 갔다. 위당은 최영학의 호이다. 최영학의 장남 최면식(崔勉植)도 독립운동가였다.

이 책은 “건(乾)·곤(坤)”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중간에 필체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2명이 나누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인용하는 주요문헌은 『구지(舊誌)』와 『속지(續誌)』이다. 이 책의 「건치연혁」에서는 『구지』에 대해서 ‘고홍진 『구지』’라고 표현하고, 『속지』에는 ‘이원조 『속지』’라고 표현하였다. 즉 『구지』는 『이원진\_탐라지』이고, 『속지』는 『이원조\_탐라지초본』인 셈이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자면 「건치연혁」은 정종 2년까지 정리되었는데, 이는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따랐다. 「읍명고증」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건치연혁」, 「성씨」, 「풍속」 등에서는 『구지』와 『속지』의 내용으로 첨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외 대부분의 항목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따랐다. 「도서」, 「대동」, 「방리」 등의 항목에는 “『속지』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는 주석이 있다. 필사의 중심이 『이원조\_탐라지초

본』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목할 점이 있는데, 바로 『장인식\_탐라지』의 흔적이다. 『최영학\_탐라지』에는 장인식(張寅植)의 작품이 다수 소개되어 있고, 관풍안도 동일하다. 이는 편자가 『이원진\_탐라지』, 『이원조\_탐라지초본』, 『장인식\_탐라지』의 내용을 모두 섭렵하고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연암집(燕巖集)』의 이방익(李邦翼) 표해록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방익의 기록이 수록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이 책은 우선 면암 집안의 소장본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원진\_탐라지』와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하나로 종합하여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이원조\_탐라지초본』이 조선후기 대표적인 제주지리지로 공인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핵심인 「기문」, 「변정」, 「구례」, 「은홀」이 없다는 것과 정의현과 대정현의 기록의 부재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 〈8〉 『탐라사실(耽羅事實)』

『탐라사실』은 현재 규장각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이다. 표지 제목은 『탐라사실』인데, 실제 내용은 『탐라지』이다. 이 책은 제주, 정의, 대정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과 동일한 필사본이 고려대학교에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탐라지』로 되어 있다.<sup>27)</sup>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耽羅事實』의 구성
濟州	建置沿革 - 鎭管 - 官員 - 邑名 - 新增(邑號攷證) - 姓氏 - 風俗 - 形勝 - 山川 - 泉井池附 - 島嶼各浦附 - 橋梁 - 土産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城郭 - 坊里 - 戶口 - 道路院站附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煙臺

27) 가람문고본은 서울대 최미순 선생의 도움이 있었다. 고려대본은 안나미 선생의 도움이 있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附 - 宮室 - 公廨 - 樓亭 - 倉庫 - 糶糴 - 學校 - 壇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醫藥 - 貢獻 - 古蹟 - 先生錄 - 科宦 - 孝子 - 孝婦 - 烈女 - 忠婢 - 瑣說 - 題詠 - 奇聞 - 異見 - 邊情(異船漂流) - 舊例 - 恩恤(調賑蠲蕩恩典)
旌義縣	建置沿革 - 官員 - 姓氏 - 風俗 - 土産 - 形勝 - 山川 - 島嶼各浦附 - 橋梁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城郭 - 坊里 - 戶口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 - 宮室 - 公廨 - 樓亭 - 倉庫 - 糶糴 - 學校 - 壇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貢獻 - 古蹟 - 先生案 - 科宦 - 孝子 - 孝婦 - 烈女 - 義士
大靜縣	建置沿革 - 官員 - 形勝 - 山川 - 島嶼各浦附 - 橋梁 - 田結 - 大同 - 俸廩 - 徭役 - 城郭 - 坊里 - 戶口 - 道路 - 防護所 - 水戰所 - 烽燧 - 宮室 - 公廨 - 樓亭 - 倉庫 - 糶糴 - 學校 - 壇廟 - 佛宇 - 將官 - 軍兵 - 工匠 - 奴婢 - 果園 - 牧養 - 醫藥 - 貢獻 - 古蹟 - 先生案 - 科宦 - 烈女 - 島擥

먼저 이 책의 「건치연혁」에는 “융희3년 기유년에 경찰서를 설치했다”는 기록으로 마무리된다. 융희3년 기유년은 1909년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조선시대에 정리한 마지막 제주기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책의 선생안에는 제주군수 윤원구(尹元求), 제주관관 홍종률(洪鍾律)까지 기록되어 있다. 1909년에는 제주군수 윤원구가 재임 중이었다. 다음 제주군수는 서병업(徐丙業)인데, 조선이 일본에 병탄된 1910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서병업 군수 때에는 정의·대정 양군이 폐지되고 다시 합쳐 제주군이 되었다. 이 책에서 제주군수 윤원구, 정의·대정의 기록까지 있는 것을 보면, 윤원구가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의 형식과 항목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와 『장인식\_탐라지』를 따르고 있다. 이 책에는 ‘천정(泉井)’의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장인식\_탐라지』의 기록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 책에도 『속지』가 나오는데, 역시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말한다.

이 책에서 추가된 부분은 ‘신증(新增)’으로 기록하였고, 표시 없이 그냥 추가된 경우도 있다. 「풍속」의 항목에서 ‘여다남소(女多男少)’의 조목은 남자를

여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정(丁)을 빼먹는다는 추가사항이 눈에 띈다. 이는 이 책에서만 보이는 관점이다. 이 밖에 추자도(楸子島), 사서도(斜鼠島)에 대해 행정변화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였다. 「토산(土産)」에서는 빈주(濱珠), 대모(玳瑁), 전복(全鰓)과 같은 해산물이 더해졌고, 「공장(工匠)」의 항목에도 포작(鮑作)이 추가되었다. 「고적(古蹟)」에서는 ‘이기온(李基璠) 구거(舊居)’가 추가되었다. 「학교(學校)」에서는 계성사(啓聖祠)가 추가되었다.

항목에는 당시 폐해진 부분들도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럴 경우는 항목의 주석으로 ‘금폐(今廢)’라고 했다. 그런데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수정하면서 더한 것으로 보인다. ‘금폐(今廢)’의 항목은 ‘대동(大同), 봉름(奉廩), 요역(徭役), 봉수(烽燧), 조적(糶糶), 장관(將官), 군병(軍兵), 공장(工匠), 노비(奴婢), 의약(醫藥)’이다.

항목으로 추가된 것으로는 「쇄설(瑣說)」과 「도요(島擾)」가 있다. 「쇄설」은 다시 ‘삼기(三奇), 사절(四絶), 오호(五虎)’로 세분되어 있는데, 제주의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기는 세 가지 기이한 일이란 의미로 ‘혜일(慧日), 만덕(萬德), 마노정(馬盧正)’이고, 사절(四絶)은 ‘고흥진, 진국태(秦國泰), 양유성(梁有成), 문영후(文榮後)’이며, 오호(五虎)는 ‘양정훈(梁廷勳), 부도일(夫道一), 김용우(金用雨), 신성흠(愼性欽), 이최영(李最榮)’을 지칭한다. 「도요(島擾)」에서는 철종(哲宗) 임술요(壬戌擾)[강제검(姜悌儉)의 난], 당저(當宁) 경인란(庚寅擾)[김지(金智)의 난], 건양(建陽) 임신요(丙申擾)[송계홍(宋啓弘)·강유석(姜瑜奭)의 난], 광무(光武) 무술요(戊戌擾)[방성칠(房星七)의 난], 신축요(辛丑擾)[이재수(李在守)의 난]을 기록하였다.

이 책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탐라지』이다. 『탐라지』의 전통이 조선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쇄설」과 「도요」의 항목은 이 책에서만 확인된다. 셋째, ‘금폐’의 항목은 없어졌음에도 기록하였다. 『장인식\_탐라지』에도 ‘금폐’는 있는데, 대체로 방어시설에 국한된다. 『탐라사실』에서의 ‘금폐’는 갑오경장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사라진 사항들이다. 그렇다고 신증의 항목에서 새로운



행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것도 아니다. 이는 변화한 사항들에 대해 제대로 추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일제강점기 이후의 제주 지리지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이후로 제주에 관한 기록은 드물다. 먼저 일제강점기 이후 확인되는 제주지리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이후의 제주지리지〉

	작성연대	명칭	형태	소장처	비고
1	소화4년(1929)	『生活狀態調査』	인쇄본	국립중앙도서관	朝鮮總督府
2	소화5년(1930)	『濟州島便覽』	인쇄본	국립중앙도서관	양산 고성주 서문
3	소화8년(1933)	『濟州島 實記』 = 『金斗奉 耽羅誌』	인쇄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4	소화14년(1939)	『濟州島勢要覽』	인쇄본	국립중앙도서관	濟州島廳
5		『朝鮮寰輿勝覽』	인쇄본		제주편
6		『金鍾鉉 耽羅誌』			답수계_증 보탐라지 서
7		『金錫翼 耽羅誌』	필사본	국립제주박물관	
8	1953년	『淡水契 增補耽羅誌』	철필본	제주문화원 발간	제주문화원 역
9	1934년	『新興里誌』	인쇄본	제주문화원 발간	里誌
10	1950년 이후	『高炳五 大靜郡誌』	필사본	대정역사문화 연구회발간	郡誌

위의 표에 있는 지리지 중에서 『생활상태조사』와 『제주도세요람』은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고, 조선총독부와 제주도청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주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주지리지

를 작성한 것이다. 『조선환여승람』의 일제강점기 전국지리지인데, 제주에 관련한 내용은 너무 소략하다. 『김중현\_탐라지』는 심재 김석익이 지은 「증보탐라지서」에서 그 이름이 보이며,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1〉 『제주도편람(濟州島便覽)』

『제주도편람』은 고정중(高禎鍾)이 작성한 책이다. 고정중에 대해서는 자세한 생평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주도 제주면 일도리 1441번지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濟州島便覽』의 구성
濟州島概觀 - 位置及地勢 - 面積 - 氣候 - 戶口 - 職業別戶口統計 - 濟州의 行政 - 教育機關 - 宗教 - 言論機關 - 社會團體 - 衛生機關 - 濟州의 交通 - 濟州의 通信 - 濟州의 金融機關 - 濟州의 農業 - 濟州의 商業 - 濟州의 工業 - 濟州의 漁業 - 濟州의 畜産 - 官廳及經濟團體 - 市場 - 名勝古蹟 - 史蹟 - 商工業一覽 - 人事紹介

책의 구성은 ‘제주-정의-대정’의 구조를 벗어나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이는 형식에 있어서 예전의 『탐라지』를 완전히 탈피한 것이다. 하지만 ‘명승고적(名勝古蹟)’·‘사적(史蹟)’ 등의 항목은 『탐라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탐라지』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문학작품의 소개는 없고, 신문물에 대한 기록은 전면에 등장한다. 판매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책을 만든 의도는 서(序)와 권두사(卷頭辭)에 잘 표현되어 있다.

蓋觀東西하고 察古今에 有國則必有史하고 有邑則必有誌하느니 然則我 濟州는 以南鮮一大寶庫로 二十萬의 人口를 有하고 數千年의 歷史를 存한 九韓의 一인 耽羅國이다.

濟州는 우리의 鄉土이다. 過去에 우리 祖先이 이곳에서 生하였스며 長하였스며 住하였스며 葬하였고 現在 우리가 生하고 長하고 住할 뿐만 아니라 永遠未來의 子與孫의 永住地이다. …중략… 그것은 제주의 외관을 아는 것이니, 외관만으로 결코 제주를 알지 못할 것이다. 참 제주를 알자면 적어도 내면으로 드러가서 제주의 역사는 엿더하며 제주의 지리는 엿더하며 제주의 문화는 엿더하며 제주의 경제는 엿더하며 제주의 산업은 엿더하며 …후략”

첫 번째 인용문은 고성주(高性柱)가 쓴 서문이다. 고성주는 제주 최초의 근대서점인 영주서관(瀛洲書館)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저자가 쓴 권두사이다. 이 두 글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주도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사람들이 그 속살을 잘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제주의 속살을 알기 위해서는 제주의 문화, 경제, 산업 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책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 『탐라지』에서는 전결(田結), 호구(戶口), 진상(進上), 공헌(貢獻) 등을 제외하고는 숫자로 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제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생활상태조사』에서 먼저 확인되며, 『제주도편람』 이후에 작성된 『제주도세요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방 후 작성된 『담수계\_증보탐라지』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이 시대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작성 주체가 제주도민이라는 것도 주목된다. 조선시대 『탐라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인의 시각으로 제주도를 기록한 책이다. 이 시대는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를 기록하려 하였다.

## 〈2〉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김두봉(金斗奉)\_탐라지(耽羅誌)』

김두봉은 일제강점기 제주인물이다. 호는 신천(信天)이고, 제주시 일도리에 거주했었다. 영주음사(瀛洲吟社)의 회원이었고, 향토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이 책은 필사본과 인쇄본 2종이 확인된다.

필사본으로 된 『김두봉\_탐라지』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표지에는 ‘탐라지’라고 되어 있다. 서문은 이응호(李應鎬)가 1932년에 썼고, 뒷부분에는 1933년 ‘제주도실적연구사편집부발행(濟州島實蹟研究社編輯部發行)’이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은 인쇄에 앞서 작성된 초고본으로 보인다.

『제주도실기』는 1932년에 인쇄되었다. 이후 4판까지 보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도서관 등에서 확인된다. 이 두 책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쇄할 때에는 이응호의 서문이 빠져 있는데,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책에는 저작권과 책 가격이 있다. 상업적인 목적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濟州道實記』의 구성	
濟州道實記	建治沿革 - 地理河川 - 氣象 - 交通及通信 - 城內沿革 - 宗教沿革 - 教育狀況 - 農産의 由來와 發展된 種類 - 勸農하는 春耕風俗 - 畜産의 發展 - 森林及造林에 대한 興味 - 無盡藏의 寶庫 濟州道の 海岸 - 古來의 遺風 - 金寧堂外各傳說 - 風俗의 燃燈神 - 漢拏山記譯 - 瀛洲十景歌 - 龍淵夜帆歌 - 農夫歌 - 埠頭에서 본 感想 - 藥水瀑布 - 漢拏山別曲 - 鮮詩 - 釣魚歌 - 古代人物 - 孝子 - 烈女 - 土擾 - 附錄 - 星主王子傳 - 李朝文治 - 總論
耽羅誌補遺	綸音 - 記文 - 上樑文 - 漢詩 - 科宦 - 先生案

『제주도실기』는 「제주도실기」와 「탐라지보유」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실기」는 국한문 혼용이고, 「탐라지보유」는 한문학 작품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핵심은 「제주도실기」이다. 「제주도실기」의 내용은 기존 『탐라지』를 계승하는 내용, 변형하여 기록한 것, 저자가 새롭게 수록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건치연혁」, 「지리하천」, 「성내연혁(城內沿革)」, 「고대인물」, 「효자」, 「열녀」, 「토요(土擾)」는 조선시대 『탐라지』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 「한라산기역(漢拏山記譯)」에는 김치(金緞)와 최익현(崔益鉉)의 「한라산기」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김치의 기문은 기존 『탐라지』에서 소개된 것이고, 최익현의 작품은 이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종교연혁」, 「교육상황」, 「농산의 유래와 발전된 종류」, 「부두에서 본 감상」 등은 시대상황에 따른 제주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 『탐라지』를 변형하여 기록한 내용들이다. 「영주십경가(瀛洲十景歌)」, 「요연야범가(龍淵夜帆歌)」, 「농부가(農夫歌)」, 「조어가(釣魚歌)」, 「약수폭포(藥水瀑布)」, 「한라산별곡(漢拏山別曲)」, 「선시(鮮詩)」의 항목은 민요와 가요 형태의 작품으로 이 책에서 처음 수록되었다. 「성주왕자전(星主王子傳)」은 탐라의 역사를 저자가 새롭게 구성하여 기록한 것이며, 신문자료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된다.<sup>28)</sup> 이 내용들은 모두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어, 많은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탐라지보유」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윤음(綸音)」을 제외하고는 기존 탐라지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선생안(先生案)」에서는 일본인 도사(島司)의 이름도 확인된다.

이 책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라지』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일제시대에도 제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 셋째, 제주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지리지이다. 넷째, 제주 사람들의 민요와 가요 등을 많이 수록하였다.

#### 〈5〉 『김석익(金錫翼)\_탐라지(耽羅誌)』

심재 김석익은 구한말 제주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며, 부해(浮海) 안병택(安秉宅)의 제자이다. 이 책은 한문필사본이며, 그의 문집 안에 『탐라지』의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먼저 전체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김석익 탐라지』 구성
제주	建治沿革 - 鎭管 - 官員 - 邑號 - 姓氏 - 風俗 - 形勝 - 山川 - 泉井 附池 - 島嶼 附浦口 - 橋梁 - 土產 - 田結 - 城郭 - 坊里 - 防護所 - 烽燧 - 宮室 -

28) 『동아일보』 1929, 12, 24~1929, 12, 28. 전설의 제주도, 성주왕자전.

	公廨 - 樓亭 - 耽羅觀風案附實興錄
정의	없음
대정	없음

이 책은 제주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의와 대정은 없다. 기존의 『탐라지』를 요약한 형태이지만, 중간에 자신의 느낌을 정확하게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풍속」의 항목에는 ‘어리석지만 검소하고 예의와 겸양이 있다.’라는 조목이 있는데, 이는 『이원진\_탐라지』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석익은 “살피건대, 토속에서 관인들을 경외하는 것은 일이 있으면 뇌물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상례가 되어 스스로 어긋난 법과 염치에 어긋나는 벌에 빠지는 줄도 모른다. 대개 비겁한 풍속은 있지만, 예의있고 겸양하는 풍조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sup>29)</sup>라고 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밖에 김석익은 시문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시문을 함께 기록하면서 보충하고 있다.

김석익은 『탐라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김석익이 소장했던 『이원진\_탐라지』는 현재 제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 말미에 김석익은 『이원진\_탐라지』에 대해 “실로 남쪽지방에서 처음 있는 문헌이었고, 세교(世敎)에 관련된 것 역시 크다. 하지만 이 책은 사이사이에 『여지』를 근거로 하였지만, 모두 수집하지 못하여 실상과 어긋나고 잘못된 탄식이 없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았다.”<sup>30)</sup> 『이원진\_탐라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9) 『김석익\_탐라지』, “案土俗敬畏官人, 有事則用賄賂, 以冀僥倖爲常禮, 而不知其自陷於乖法傷廉之誅, 蓋鄙劫之風, 則有之, 而禮讓之風, 吾不知也.”

30) 『국립제주박물관\_탐라지』, “粵在孝宗癸巳, 耽羅志成, 卽牧使李公元鎮所編也. 李公以此方文獻無徵, 爲之追繹故事, 修述邑誌, 令州人高弘進監校鉅梓, 實南方創有之文籍, 而抑有關於世教者, 亦大矣. 然其爲書也, 間以輿誌爲據, 而蒐採未盡, 不無闕誤爽實之嘆. 蓋當時載籍未備, 有非一二人聞見精力之所及, 則固不可以一疵之瑕, 而拋棄全璧也, 明矣. 此爲中世印本, 而板久字剝, 不可讀者, 過半, 爲之可慨也. 余於四十年前, 得見一本, 紙毛色煤, 而印跡明皙, 一字不舛. 且卷末有申續跋文, 乃知最初印本也, 今不知落在何邊. 己丑冬心齋迂人, 金錫翼, 書於琅嬛室. 心齋.”

『김석익\_탐라지』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사람의 관점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국한문혼용의 시대였지만, 한문을 고집하고 있다. 즉 전통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탐라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넷째, 『담수계\_증보탐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6〉 『담수계\_증보탐라지』

이 책은 1953년에 완성되었다. 담수계(淡水契)는 김문희(金汶熙), 김범준(金範俊), 두산(頭山) 백용석(白庸錫), 수광(水光) 김창희(金昌禧) 등으로 구성된 당시 제주 지식인이었다. 기존의 『탐라지』가 개인 저작에 가까웠다면, 이 책은 일종의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먼저 책의 전체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담수계_증보탐라지 구성	
地理	山川 - 泉池 - 沙數 - 道路 - 島嶼 - 名所古跡 [名勝 - 古跡 - 官衙一 - 官衙二 - 樓亭 - 倉庫 - 城郭 - 烽燧 - 祠廟 - 學校 - 寺刹 - 果園 - 柑橘 - 牧場]
沿革	通史 - 附 奇聞傳說 - 附 題詠 - 附 舊例
氣象	
風俗	
區劃	
官公署	
交通	陸上交通 - 海上交通
通信	
教育	
宗教	佛敎 - 天主教 - 예수敎 - 水雲敎
産業	農業 - 畜産業 - 林業 - 商業 - 鑛工業 - 水産業
言論機關	
社會團體	

産業機關	
金融機關	
人物	科宦 - 進士 - 文學 - 才猷 - 筆苑 - 孝子 - 義士 - 孝婦 - 烈女 - 節婦 - 義女 - 忠婢 - 醫術 - 天文 - 地理 - 富豪 - 滑稽 - 僧侶 - 其他
觀風案	

이 책의 권두사에서는 『이원진\_탐라지』, 『이원조\_탐라지초본』, 『김석익\_탐라기년』 등의 저술을 이야기하면서 ‘탐라역사를 보는 일반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또는 넓은 범위에 걸쳐 좀 더 자세히 하자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하였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소강(小岡) 김문희(金汶熙)의 ‘고고증금(考古證今)’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 역시 이 책의 취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김석익의 간곡한 지도와 격려’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책은 활자 인쇄도 못했고, 첩필로 유지를 굵어서 제작하였다.

이 책의 기본체제는 『탐라지』를 기초로 하면서도 일제시대 지리지의 특징을 모두 담고자 하였다. 분량으로 봤을 때는 ‘명소고적(名所古跡)’조가 주목되는데, 전체 500면 가운데 200여 면을 차지한다. 내용은 기존 『탐라지』의 것이다. 김석익의 간곡한 지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기상, 교통, 통신, 종교, 산업, 언론기관, 사회단체, 산업기관, 금융기관’ 등의 조목은 모두 통계자료가 실려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통계자료들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풍안(觀風案)에는 일본도사(日本島司)의 이름은 없다. 저자들의 의식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책은 분량 상으로 가장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제주 지리지이다. 해방 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전해지던 『탐라지』와 일제강점기의 변화사항을 모두 정리하고 있다. 이는 해방 후에도 ‘제주지리지는 『탐라지』’라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사람들의 중심이 되어 제주를 재정리하고자 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내부자의 시각으로 제주를 다시 읽으려는 시도가기 때문이다.



#### 4. 제주지리지 『탐라지』의 의미

『이원진\_탐라지』는 고려 때부터 쌓인 제주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찬 제주지리지이다. 이 책은 이후 제주지리지의 전형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후 많은 제주지리지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형상\_남환박물』에서는 『이원진\_탐라지』와 많은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지리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탐라지』라고 하기는 힘들다. 형식도 파격에 가깝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풍속과 제주의례에 관련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자신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경험과 공적을 의식하면서 적었기 때문이다.

『윤시동\_탐라지』인 경우는 『이원진\_탐라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 책은 『이원진\_탐라지』를 기초로 ‘증보’하는 형태였다. 특히 변방에 관련한 「구진」, 「고금사적」, 「표류이국문정」과 조정의 혜택에 관한 「열조특전어사순막」은 자세히 적었다. 이는 모두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강희\_탐라직방설』은 당시 제주바다의 실제상황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다. 제주지리지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당시 본토 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이원진\_탐라지』의 중간본이 나온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의 내용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문」, 「변정」, 「구례」, 「은홀」의 항목은 매우 심혈을 기울여 보충한 사항이었다. 이후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이원진\_탐라지』의 위치를 대신한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바로 『장인식\_탐라지』로 계승된다. 이후 『이원조\_탐라지』는 「구지」,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속지」의 이름으로 재생산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최영학\_탐라지』였다. 『탐라사실』은 조선왕조 마지막을 장식한 제주지리지였다. 이 책에서는 「쇄설」과 「도

요」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조선시대 『탐라지』는 『이원진\_탐라지』에서 시작하여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 한 차례 크게 변화하고,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이후 제주지리지의 기준으로 자리한다. 각각의 『탐라지』는 많은 출입이 있지만, 모두 시대와 변화에 맞게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탐라지』가 왜 이렇게 많이 확인되는 것일까? 첫째, 제주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인 경우는 다녀간 사람들도 적지 않고, 조연을 구할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분명 달랐다. 게다가 제주의 책임자는 목사이지만, 감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실제로 제주목사는 정3품 아문이 아니라 종2품 아문이었다. 둘째, 조선후기 서양세력이 동진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당시 제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정보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었다. 이는 『탐라지』에 변방과 표류에 관한 기록이 증가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정운경\_탐라문견록』이나 『송정규\_해외문견록』에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대해, 본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본토와는 결이 다른 이질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탐라지』의 저술 시각은 기본적으로 외부인의 관점이었다. 수정할 때 지역지식인들을 참가시켰다고 하지만, 이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였다. 이는 대부분이 제주목사의 주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탐라지』와 『제주읍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읍지』는 3종이 확인된다. 1종은 정조 때 작성되었고, 나머지는 고종 대에 만들어졌다. 『제주읍지』의 구성은 『탐라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빈약하기 그지없고, 하나의 보고서와 같다. 이는 대체로 진상과 공헌을 위한 기록의 느낌이다. 이에 여러 문학작품들은 수록될 수 없었다. 공찬읍지임에도 제주의 속살을 확인하기는 힘들기에, 아쉽지만 『탐라지』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조선이 일제에 병탄된 후에는 공식적으로 『탐라지』의 시대는 끝나고, 새

로운 형태의 제주지리지가 출현하였다. 『제주도편람』, 『제주도실기』는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주를 재정리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각종 조사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시기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정의현과 대정현은 사라졌고, 세부적인 주제로 정리하였다. 이 시기 제주지리지는 상업적인 목적도 있었고, 이는 제주도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전통을 지키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김석익\_탐라지』가 대표적이다.

저술시각에 전환도 주목된다. 조선시대 『탐라지』가 외부인의 시각으로 기술되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사람들이 제주를 주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제주지식인들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부터 과거합격자들이 다수 나오기 시작했고, 구한말에는 제주사람들이 제주관리로 부임하기도 한다. 본토로 진출하여 공부하는 사람들도 출현하기 시작한다. 둘째, 구한말 출륙금지령이 유야무야되면서 지리적 인식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영역이 본토는 물론 쿠로시오 해류의 주변 나라로 확대된다. 많은 제주사람들이 제주바다를 건너 생활하였고, 이런 활동이 지리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제반사항으로 제주사람들이 ‘제주’라는 공간을 보다 주체적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성과를 종합한 『담수계\_증보탐라지』에서 잘 확인된다.

제주지역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지리지로는 리지(里誌)를 들 수 있다. 제일 먼저 확인되는 책은 1934년에 작성된 『신흥리지(新興里誌)』이다. 이 책은 리(里)단위의 지리지로는 가장 빠르다. 신흥리는 북제주군 함덕과 조천 사이에 있다. 예전에는 왜포(倭浦)로 불렸다. 이 책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에는 설촌 유래 등을 기록하였고, 2권에는 마을의 주요사건을 기록하였고, 3권에는 애향심을 강조하는 내용과 기부내역 등을 수록하였다. 4~5권은 현대에 보충된 것이다. 리지(里誌)의 서문에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표현되어 있다.<sup>31)</sup> 제주도 내에서 ‘고향’이라고 할 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리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이다. 『신흥리지』 이후 제주도 거의 모든 마을에서 리 단위로 마을지리지가 만들어진다. 모두 마을에 대한 주체적 의식의 표현이며, 이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 하겠다.

해방 후 한문으로 작성된 제주지리지는 고병오(高炳五, 1899~1972)의 『대정군지(大靜郡誌)』를 들 수 있다. 고병오는 대정읍 상모리 출신이다. 간재 전우를 찾아가 배웠던 인물로 평생 상투를 지키며 살았다. 이 책은 262면에 9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항목은 『탐라지』와 일제강점기의 제주지리지의 항목과 동일하다. 내용은 대정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여기에 6.25때 전사자와 4.3때 해를 입었던 대정사람들까지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이 책 역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시대의 변화사항을 담아내었다.

현대에 들어서서 제주에는 마을마다 마을지가 작성되었고, 마을을 소개하는 여러 책자들도 만들어졌다. 『정의읍지(旌義邑誌)』, 『대정읍지(大靜邑誌)』, 『제주도지(濟州道誌)』 등도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제주지리지 인식의 기저에 모두 『탐라지』가 자리하고 있다.

## 5. 나오며

지금까지 제주지리자인 『탐라지』를 정리하고 의미를 추적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원진\_탐라지』 이후 있었던 제주지리지를 정리하고, 그 특징과 변화사항을 확인하였다. 본고를 통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제주지리지를 통시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았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집중적인 규명이 모자랐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자리한다.

31) 『心齋集』, 『新興里誌序』.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관련 문헌을 모두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탐라지』의 정보는 개인저작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개인저작물이 『탐라지』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정보의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탐라지』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원진\_탐라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는 없다. 셋째, 제주지리지를 각 항목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항목별로 변화사항을 통시적으로 확인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풍속조에 대한 통시적 연구로는 마치다타카시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도 모든 『탐라지』를 살펴본 것은 아니었고, 번역된 일부를 참조한 것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자료조사가 이어져야 하겠다. 지금 소개한 책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학 연구는 세부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부적인 연구와 함께 거시적 안목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 자료

- 『九思堂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22.  
『記言』, 한국문집총간 98.  
『鏤板考』,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靜郡誌』, 대정역사문화연구회, 도서출판 가사아히, 2006.  
『白湖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23.  
『生活狀態調査』, 국립중앙도서관.  
『世宗實錄地理志』, 한국고전번역원db.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db.  
『純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db.  
『雲問集』, 維基文庫db.  
『霽山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06.  
『濟州道實記』, 국립중앙도서관  
『濟州邑誌』,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지 지리지편, 전라도편(21), 2009.  
『濟州島勢要覽』, 국립중앙도서관.  
『濟州島便覽』, 국립중앙도서관  
『淸陰先生集』, 한국문집총간 77.  
『冲庵先生集』, 한국문집총간 23.  
『耽羅事實』, 서울대 도서관.  
『耽羅誌』, 가톨릭대 도서관.  
『耽羅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耽羅誌』, 국립중앙도서관.  
『耽羅誌』, 제주국립박물관.

- 『耽羅誌』, 성균관대 존경각.
- 『耽羅誌』, 충남대 도서관.
- 『耽羅誌』,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 『耽羅誌』, 고려대 도서관.
- 『耽羅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5), 1989.
- 『耽羅志略』, 국학진흥원.
- 『耽羅職方說』, 경도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金尙憲(홍기표 역), 『南槎錄』, 제주문화원, 2008.
- 金錫翼(김새미오 역), 『心齋集1,2』, 제주우당도서관, 2018~2019.
- 김정 외(김계연 외 역),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 김지홍·원창애 역, 『제주삼읍교회사료집』, 제주문화원, 2003.
- 담수계(김찬흡 외 역),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 『大靜邑誌』, 대읍읍지편찬위원회, 파피루스, 2010.
- 박종기 역, 『고려사지리지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윤시동(김영길 역),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16.
- 李元鎭(실시학사교전문학연구회 역), 『태호이원진의 태호시교』, 실학번역총서11,  
2013.
- 李衡祥(이상규, 오창명 역), 『南宦博物』, 푸른역사, 2009.
- 宋廷奎(김용태·김새미오 역), 『海外聞見錄』, 휴머니스트, 2015.
- 李源祚(김찬흡 외 역), 『耽羅誌草本』, 제주교육박물관, 2007.
- 李元鎭(김찬흡 외 역), 『耽羅誌』, 푸른역사, 2002.
- 李衡祥(오창명·이상규 역), 『南宦博物』, 푸른역사, 2009.
- 李增(김익수 역), 『南槎日錄』, 제주문화원, 2001.
- 『의성김씨 제산종택』,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목록집 62,  
2019.
- 鄭運經(정민 역), 『耽羅見聞錄』, 휴머니스트, 2008.

□ 논저

- 고영섭, 「경기도 이천 北嶽寺(映月庵)의 역사와 인물」, 『韓國佛敎學』 제67집, 한국불교학회, 2013, 295~332쪽.(UCI: G704-001245.2013.67..011)
- 김경옥, 「金陵邑誌」의 편찬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역사학연구』 제52집,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3, 63~86쪽.(UCI: G704-001257.2013.. 52.010)
- 김남형, 「驪江世稿」研究 I - 문헌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42집, 한국학연구원, 2011, 317~338쪽.(UCI: G704-001843.2011.42.005; DOI: 10.18399/actako.2011.42.011)
- 김문식, 「16~17세기 寒岡 鄭述의 地理志 편찬」, 『민족문화』 제29집, 한국고전번역원, 2006, 173~218쪽.(UCI: G704-001842.2006..29001)
- 김민현, 「1411년 제주도 간본『논어』의 서지학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15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33~53쪽.(DOI: 10.25024/ksq.42.1.201903. 33)
- 김새미오, 「병와 이형상의 제주지방 의례정비와 음사철폐에 대한 소고」, 『대동한문학』 제63집, 대동한문학회, 2020, 103~140쪽.
- \_\_\_\_\_, 「『이원진\_탐라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제112집, 대동문화연구소, 2020, 349~378쪽.(DOI: 10.18219/ddmh..112.2020 12.350)
- 김선경, 「조선 정부의 강진 파악」, 『다산과현대』 제8집, 연세대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5, 229~256쪽.
- 김순희, 「吳灋과 『咸州志』」, 『서지학연구』 제29집, 한국서지학회, 2004, 475~ 498쪽.(UCI: G704-000060.2004..29.011)
- 김영진, 「새 발굴 驪州李氏 先世 문집·저술 고찰(1)-<太湖詩稿>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제36집, 온지학회, 2013, 129~166쪽.(UCI: G704-001782.2013..36. 003)
- 김우리,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3집, 역사문화학회, 2020, 157~190쪽.
- 김효정, 「太湖 李元鎭의 詩世界 考察」, 『한국민족문화』 제73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97~124쪽.(DOI: 10.15299/jk.2019.11.73.97)



- 나재록, 「16~17세기 사찬읍지를 통해 보는 지방(향촌)문화」, 『인문사회』 제21집,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157~170쪽.(DOI: 10.22143/HSS 21.10.2. 12)
-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제8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219~252쪽.
- 마치다 타카시, 「민속과 폐습 사이: 제주도의 폐습론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17.
- \_\_\_\_\_,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 『역사민속학』 제55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55~87쪽.(DOI: 10.22792/jkhf.2018.. 55.003)
- 박인호, 「성주 읍지『경산지』의 파판과 그 정치적 함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8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6, 233~270쪽.(UCI: G704-001229.2016.. 58.010)
- \_\_\_\_\_, 「김천 읍지『금릉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韓國史學史學報』 제30호, 한국사학사학회, 2014, 147~177쪽.(UCI: G704-001549.2014..30.004)
- \_\_\_\_\_, 「선산 읍지『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역사학연구』 제64호, 호남사학회, 2016, 69~106쪽.(UCI: G704-001257.2016..64.003)
- 박종배, 「읍지(邑誌)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무학(武學)」, 『교육사학연구』 제26호, 교육사학회, 2016, 91~130쪽.(UCI: G704-001836.2016.26.2.005; DOI: 10.18105/hisedu.2016.26.2.003)
- 박 주, 「조선 후기 청도『鰲山志』의 편찬과 효자, 열녀」, 『한국사상과 문화』 제7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109~130쪽.(UCI: G704-000697.2014..74. 002)
- \_\_\_\_\_, 「조선시대 경남지역의 효자·효녀·효부-「경상도읍지」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54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259~304쪽.(UCI: G704-000697.2010..54.018)
- \_\_\_\_\_, 「조선 후기 청도『鰲山志』의 편찬과 효자, 열녀」, 『韓國思想과 文化』 제74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109~130쪽.(UCI: G704-000697.2014.. 74.002)
- \_\_\_\_\_, 「조선 중기 丹城지역의 효자 열녀: 『丹城誌』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13호, 고려사학회, 2002, 421~443쪽.
- 박종기, 「조선시기 관찬 지리지의 섬 인식과 변화」, 『한국학논총』 제48호, 한국학연

- 구소, 2017, 125~154쪽.
- 박철상, 「조선 최고의 병서 제주도판『황석공소서』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해석』 제 45호, 문헌과해석사, 2008, 265~274쪽.
- \_\_\_\_\_, 「제주판『삼국지연의』 간년 고증」, 『포럼 그림과 책 2011 논문집(1)』, 화봉문고, 2011.
- 소순규,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동방학지』 제165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4, 33~64쪽.(UCI: G704-001255.2014..165.004; DOI: 10.17788/dbhc.2014..165.002)
- 양보경·김경란, 「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 『應用地理』 제22호, 성신여대 한국지리연구소, 2001, 89~115쪽.(UCI(KEPA) : I410-ECN-0101-2014-900-003146514)
- 안대회, 「茶山 제자 李綱會의 利用厚生學-船說 車說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10호, 한국실학학회, 2005, 289~322쪽.(UCI: G704-001622.2005..10.005)
- 안장리,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新都八景』과 『大明一統志』의 『京師八景』 비교」, 『역사민속학』 제3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161~196쪽.(UCI: G704-000849.2011..36.001)
- 우인수, 「1749년 蔚山邑誌『鶴城誌』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제117호, 한국사연구회, 2002, 125~153쪽.(UCI: I410-ECN-0100-2009-911-018285686)
- 원종민, 「『현주만록(玄洲漫錄)』·『운곡잡저(雲谷雜著)』를 통해 본 표류 중국인과의 의사소통 과정 및 문정(問情)기록」, 『中國學研究』 제60호, 중국학연구회, 2012, 135~162쪽.(UCI: G704-000529.2012..60.003)
-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논문, 2007.
-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서지학연구』 제34집, 한국서지학회, 2006, 251~271쪽.(UCI: G704-000060.2006..34.002)
- 윤재환, 「新資料『太湖詩藁』를 통해 본 李元鎮의 詩世界-資料 소개와 詩世界의 概略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제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391~428쪽. (UCI:

G704-001598.2008.18.1.006)

- \_\_\_\_\_, 「少陵家の 使行 經驗과 詩的 形象化—少陵 李尙毅·太湖 李元鎮·梅山 李夏鎮을 中心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197~232쪽.(UCI: G704-001663.2010.31.31.007; DOI: 10.35374/dyha.31.31.201008.008)
- 이 옥,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대구사학』 제124집, 대구사학회, 2016, 177~206쪽.(UCI: G704-000893.2016.124..003)
- 임형택, 「다산학단(茶山學團)에서 해양으로 학지(學知)의 열림-이강희(李綱會)의 경우」, 『大東文化研究』 제56집, 대동문화연구원, 2006, 75~107쪽. (UCI: G704-000956.2006..56.011)
-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 제43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1~71쪽.(UCI: G704-SER000011460.2013.43. 004; DOI: 10.22943/kyujg.2013..43.002)
- 이건식, 「黃胤錫의 1775년 全國 地理誌 編纂 凡例의 특징 분석-1775년 무렵 弘文館의 전국 지리지 편찬 關例의 復元 시도」, 『지명학』 제14호, 한국지명학회, 2008, 101~150쪽.(UCI: G704-SER000000674.2008.14..005)
- 정대영, 「지식인이 바라본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제작·영·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중심으로」, 『규장각』 제51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105~127쪽.(DOI: 10.22943/kyujg.2017..51.003)
- 정 민,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을 통해본 양제해 모변사건의 진실」, 『한국실학연구』 제15호, 한국실학학회, 2008, 263~301쪽.(UCI: G704-001622.2008.. 15. 006)
- 조성산, 「이강희의 『탐라지방설(耽羅職方說)』과 제주도(濟州道)」, 『다산학』 제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49~80쪽.
- 최성환,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호, 역사문화학회, 2010, 253~305쪽.(UCI: G704-001407.2010.13.1.011)
- 최원석, 「咸州誌 편찬 및 구성의 역사지리적 특징」, 『문화역사지리』 제27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5, 18~38쪽.(UCI: G704-001361.2015.27.3.004)

허경진·강혜중, 『朝鮮寰輿勝覽』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 『열상고전연구』 제35집, 열상고전연구회, 2012, 235~260쪽.(UCI: G704-001858.2012..35.014; DOI: 10.15859/yscs..35.201206.235)

||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s  
of the Geography of Jeju:**  
Focusing upon the Geography of Jeju published  
after *Lee Won-Jin's Tamla Geography*

Kim, Sae-Mi-O

This paper reports on ten different types of Jeju Island's geography that are published after *Lee Won-Jin's Tamla Geography*. Each geography has its own way of documenting that accords to different time periods and changes. *Lee Won-Jin's Tamla Geography* is the one upon which *Tamla* geography all began; and significant changes were identified for *Lee Won-Jo's Abridgement of Tamla Geography*. Afterwards, no change was made until the end of the Joseon era.

Once after the Joseon Dynasty came forcefully under the Japanese rule, the age of *Tamla Geography* officially ended; and the new type of Jeju Geography emerged. At this time, Jeju Geography reformulated Jeju drawing upon statistical data. According to the change in administrative zoning, *jeonghui hyun* and *daijeong hyun* disappeared; and the entire region of Jeju was categorized by subjects, for which there was a commercial purpose behind.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re were works undertaken to inherit the *Tamla Geography* of the Joseon Dynasty.

The availability of several geographies indicates that basic knowledge to rule Jeju was not enough at that time. Also, it is because along with the movement of the Western powers during the lat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owards the East brought about interest in the sea and borders. It

also indicates that many people at that time showed significant interest in Jeju.

It is worthwhile to pay attention to the shift in perspectives in documenting. While *Tamla Geography* of the Joseon era was described with the viewpoint of non-Jeju people, Jeju Geography of the Japanese rule was documented by Jeju people with their own perspectives. Such shift in documenting styles was made possible in the situation in which intellectuals of Jeju grew significant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geographical perceptions expanded with the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the mainland becoming vague and indecisive.

Even currently, not only village geography of Jeju Island but also geography of the entire Jeju Island is continuously being under work. The importance of the *Geography of Tamla* was clearly identified in that diverse geographies of Jeju all inherit its tradition.

**Keyword** ● Jeju Geography, Supplementary Edition for the Geography of Tamla, *Namwhanbakmul*, Geography of *Daejung* Gun, Geography of *Shinheung ri*

■ 논문투고일 : 2021. 2. 28 ■ 심사완료일 : 2021. 4. 23 ■ 게재확정일 : 2021. 4. 23